

투데이 칼럼

‘특별(Special)’에 대한 단상

지금 우리 사회는 ‘특별(special)’이라는 말에 유난히 악센트(accent)를 두는 경향이 짙다. 때때로 ‘특별’이라는 키워드(key word)를 권장하는 사회처럼 들리기도 한다. 특별위원회, 특별자치도, 특별시, 특별상, 특별법..... 평범함으로는 엄중한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특별함을 찾는 기습을 익히고 저마다의 필살기를 끊임 없이 추구한다. ‘특별’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인 것과 아주 다름’ 또는 ‘두드러지게 아주 다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특별함이란 무언가가 평범한 것과 구별되어 독특하고 놀라운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특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Special’인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spec(보다) + ial(형용사 어미)’이 합쳐져 ‘보는’이 되는데 이 말에 의미를 더해 ‘특별해서 보지는’으로 진화되고 ‘특별한’이라는 말로 정착하게 된다. 결국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줘야 특별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황인홍  
무주군수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이 된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패를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 무주군 또한 ‘자연특별시’를 지향하며 2024 무주방문의 해, 전만 관광객을 목표로 도약과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의 특별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또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무주’ 하면 대한민국 대표관광 1번지, 청정환경의 바로미터 반딧불이의 고향,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이자 한류의 원조인 세계 태권도의 메카, 경삼·진라·충청이 만나는 삼도화합의 중심지, 백제와 신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동·서 화합의 장소, 10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사는 전국 최장수 고을, 우리나라 최대 전마 생산지 등등, 그 수식어를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무주만의 특별함에 대한 갈망도 크다. 모방과 창조, 그리고 융합이라는 큰 틀에서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만들면 무주의 잠재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 항상 그렇듯 방문과 관광은 늘 정비례한다. 그리고 그 합(合)은 언제나 특별함이다. 우리 무주가 관광목적지로서의 지명도를 높여 좀 더 깨끗한(자연성 가치), 좀 더 즐거움(경험 가치), 좀 더 있고 싶은(체류 가

치), 좀 더 자주 찾는(재방문 가치), 좀 더 오기 쉬운(접근 가치)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특별함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처럼 “작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지속은 특별함이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특별함이 언제나 특별할 수는 없다. 언제나 특별해지는 순간 특별함은 더 이상 특별함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4년 무주방문의 해가 특별한 이유이다. 그리고 그 특별함의 전제조건은 언제나 나부터 먼저이다. 나, 너, 우리가 2024년을 브랜드 마케팅의 호기로 삼아 무주의 가치를 씨실과 날실로 아로새기며 평범한 일상에 특별함을 더하고 보여줘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들로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가 Black energy는 모두 끌어내고 White energy로 가득 채워주는 마법 같은 장소가 되어 무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좋아하고 싶은 날로 가는 티켓팅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설

실손보험료 인상 문제

올해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160%에 육박했다. 삼성 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21.2%로 올랐다. 3세대 실손보험은 1·2세대를 보완해서 2017년 4월에 출시해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을 말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56.6%로, 2022년 말(131.4%)보다 25.2%포인트(p) 상승했다. 손해율이 156%라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료 100만원을 받으면 보험금이 156만원 나간다는 의미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상승세다. 2021년 7월 현재까지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2년 89.5%에서 지난해 상반기 115.9%로 상승했다.

반면 1세대(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상품 손해율은 124.9%에서 121.5%로, 2세대는 111.5%에서 110.7%로 낮아졌다. 2022년 6월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손해율 안정세를 보였다. 보험사의 과잉 수술 심사기준이 강화되자 실손보험 손해율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여전히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많다는 입장이다. 주요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수·체외충격과·증식치료 등 물리치료 지급보험금의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씩 늘었다. 지난 2022년 말 두 자릿수 인상에 이어 실손보험료가 오르면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도 한층 더 높아진다.

RE100의 과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기업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차원의 캠페인을 말한다. 재생에너지란 태양광·태양열·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그린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등 친환경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의미한다. 100% 재생에너지 사용 가능성은 1975년 덴마크의 물리학자에 의해 제안되었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21세기에 들어서였고, 기후 온난화 상황에 이르러 관심이 집중되었다. 2014년 국제연합(UN) 기후정상회의에서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의 제안으로 RE100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초기 미국과 유럽의 기업에서 중국과 인도, 한국 등으로 참여 기업이 확장되었다. 애플·구글·BMW·메타·마이

크로소프트·지엠·나이키·인텔·3M·샤넬·듀폰·스타벅스·버버리·이베이·화이자 등이 가입했다. RE100의 회원사는 골드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된다. 2023년 6월 기준 전 세계의 참여 회원사는 410개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3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고려이연·KT·LG에너지솔루션·LG이노텍·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전자·삼성SDI·SK하이닉스·SK텔레콤은 골드회원이다. 삼성화재해상보험·아모레퍼시픽·현대모비스·현대위아·인천국제공항공사·주식회사카카오·KB금융그룹·한국수자원공사·LG전자·롯데웰푸드·미래에셋·네이버·삼성생명·신한금융그룹·SK아이이테크놀로지·SK·SK메타리얼즈·SK실트론·SKC·롯데칠성음료는 일반회원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푸에르토리코 거리 축제, 행진하는 큰머리 인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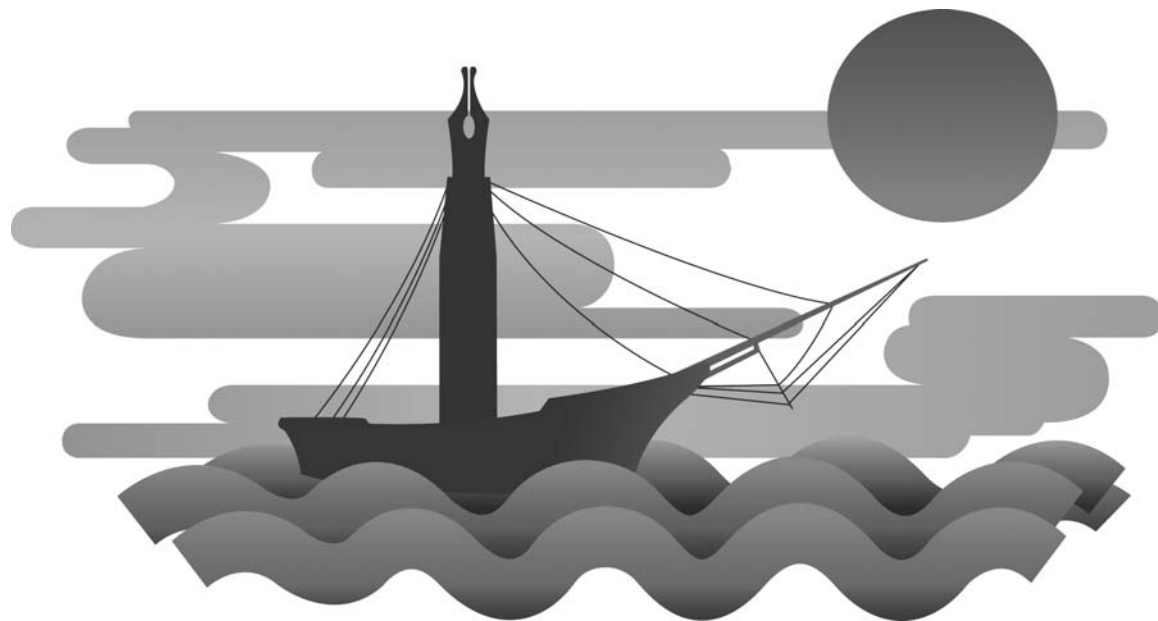


21일(현지시간)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산 세바스티안 거리 축제가 열려 역사적 인물을 상징하는 큰머리 인형 '카베수도스'를 쓴 사람들이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

나치에 반대하는 독일 시위대



2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의사당 앞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당과 극우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휴대전화 불빛을 밝히고 있다. 시위대는 독일 전역에서 '나치 반대' '민주주의 수호' 등의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최근 AfD 당원들이 극우주의자들과 함께 이주민 수백만 명을 독일에서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위를 촉발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